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October/November 2012**

2 hours

Additional Materials: Answer Booklet/Paper

1322046669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If you have been given an Answer Bookle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Booklet.
Write your Centre number, candidate number and name on all the work you hand in.
Write in dark blue or black pen.
Do not use staples, paper clips, highlighters, glue or correction fluid.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fasten all your work securely together.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This document consists of **6** printed pages and **2** blank pages.

© UCLES 2012

Part 1

Passage 1 을 주의깊게 읽고 Question 1 에 모두 답하십시오.

Passage 1

아래 글은 <오주석의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오주석 지음) 가운데 '옛그림의 여백' 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우리 옛그림에는 서양화에는 없는 여백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화가가 그림 바탕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상적으로는 '나머지 흰 부분' 화면의 '빈 부분'이다. 그러나 여백은 정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백에는 그려진 형상보다 더 심오한 것이 더 많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최상의 화가는 형상을 위하여 여백을 이용한다기보다 오히려 여백을 음미하기 위하여 형상을 그린다. 김홍도의 <주상관매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모범이 되리라"고 하였다. 이 말은 물론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도(道)에 관한 하나의 비유였지만 '지백수흑 知白守黑'은 그 뜻하는 내용의 절실함으로 인하여 곧 서예 작품에서 구성의 근본 원리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서예의 원리는 그대로 옛그림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전통 사상에서 백색은 순양의 빛깔이며 흑색은 순음의 빛깔이다. 따라서 양은 형이상학적인 원천을 상징하고 음은 형이하학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할 때 여백이 가지는 심오한 뜻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백은 그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각에도 여백이 있다. 조각이 삼차원 속의 덩어리라면 그것을 둘러싼 공간은 여백이다. 공간이 없는 덩어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공간이 덩어리를 에워싸고 덩어리와 어우러져 서로 침투하고 서로를 낳아야 한다. 음악에도 여백이 있다. 누군가 "음악은 침묵이라는 하얀 백지장 위에 소리라는 붓으로 그려낸 그림"이라 하였다. 또 허공을 맴도는 음악이 그대로 얼어붙으면 조각이 된다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침묵의 여백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고 손상되었을 때 심금을 울리게 하는 음악이란 있을 수 없다. 여백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여백이다.

[중략]

옛분들은 자연을 겉태로 보지 않고 그 마음으로 보았다. 특히 하늘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하늘은 지극히 큰 것으로 온갖 생명과 도덕의 원천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양화법이 도입된 이래 푸른 하늘이 화폭에 그려지게 된 것은 회화 기법의 발전이 아니라 회화 정신의 쇠퇴였다. 진정한 하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오히려 하늘의 가장 큰 특징은 '비어 있다는 점'에 있으니 그저 화면에 하늘을 위한 여백을 남겨두는 행위야말로 진정 하늘을 잘 그리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옛그림의 여백 사용은 자연의 묘리를 파악해서 얻어낸 최상의 기법이요 발상이었다. 왜냐하면 여백으로 드러나는 하늘과 물의 본질적 특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그것의 외면 형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과 물의 본질적인 속성은 그것이 가지는 무한한 공간적 확산성, 그리고 그 공간이 하늘을 나는 새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등 모든 생명체에 부여하는 무한한 자유에 있다. 이 공간과 자유는 그림의 바탕을 그대로 이용하고 하등의 인공적 작위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땅은 어떠한가? 땅 또한 만물이 그에 의지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삶의 공간이 아닌가? 그렇다. 그래서 <세한도>에서처럼 땅도 몇 줄의 가는 선만으로

© UCLES 2012

표현된다. 특히 겨울 산수화에서 눈을 그릴 때는 흔히 '땅을 빌려서 눈을 삼는' 것이다. 눈을 그리는 방법엔 원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서양화에서처럼 눈이 쌓인 부분에 직접 흰색을 바르는 방법(부분법)이고 다른 하나는 거꾸로 눈이 없는 다른 부분을 그려서 그림의 흰 바탕에 눈이 쌓인 것처럼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방법(유백법)이다. 이 가운데 유백법을 격조 높은 기법으로 보았던 오랜 전통은 자연을 보는 옛사람들의 관점을 분명히 말해준다.

텅 빈 하늘이 있은 후에야 휘황한 달이 아름답고 아지랑이 서린 아득한 공간이 있어야만 그 앞에 뻗어난 한 줄기 댓가지가 풍류롭다. 보이는 형상은 빈 여백 공간과 끊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무는 유를 낳고 유는 무에 의지한다. 아니 유는 드러난 것이고 무는 감추어진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빈 공간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의 여백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히 크고 넓어서 그려낼 수 없는 그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음악에서도 극히 여린 소리와 긴 침묵의 순간에 숨죽이는 더 큰 감정의 떨림이 있고 무용에서도 정중동으로 가만히 들어올리는 가느다란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 하나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네모진 화폭 속에서 어느 한 부분도 다른 한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 형상이야 있건 없건 화면에는 고르게 예술가의 혼이 떠돌고 있으며 특히 여백 속에는 화가의 못 다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어딘가에 보일 듯 말 듯하게 바림이 사용돼 있다는 사실도 비로소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옛사람들의 여유롭고도 쏠쏠한 마음 씀씀이를 이해하게 된다. 흔히 '마음의 여백'이라는 말을 한다. 옛그림에는 '여백의 마음'이 있다.

1 Passage 1을 읽고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하십시오. 답을 쓸 때에는 가능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신의 문장으로 쓰십시오.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문항당 점수를 의미합니다. 답안에 사용된 언어 구사력이나 정확성에 따라 5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총점은 20+5=25점입니다.)

(a) '서예의 구성 원리'를 나타내는 용어와 그 뜻을 찾아 쓰십시오. [2]

(b) '서예의 원리'를 옛그림에 적용할 때 여백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2]

(c) 그림 외 다른 예술에서 여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 쓰십시오. [1]

(d) 18–20줄에서 음악과 조각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했는지 자신의 문장으로 설명하십시오. [2]

(e) 23줄에서 '겉태'와 같은 뜻을 지닌 낱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십시오. [1]

(f) 26–27줄에서 푸른 하늘을 그린 것이 '회화 정신의 쇠퇴였다'고 보는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2]

(g) 31줄에서 말한 '하늘과 물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지 쓰십시오. [2]

(h) 옛그림에서 눈을 그리는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인지 쓰고 그 방법이 서양화 기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십시오. [3]

(i) 화가가 여백과 비슷하게 그림에 사용하는 기법을 뜻하는 낱말을 마지막 단락에서 찾아 쓰십시오. [1]

(j) 58줄에서 '옛그림에는 '여백의 마음'이 있다'고 할 때 '여백의 마음'을 가리키는 또다른 표현을 같은 단락 안에서 찾아 쓰십시오. [1]

(k) '보이는 형상'과 '여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예를 마지막 두 문단에서 세 가지 이상 찾아 자신의 문장으로 설명하십시오. [3]

© UCLES 2012

Part 2

Passage 2를 주의깊게 읽고 Question 2에 답하십시오.

Passage 2

다음은 <우리 음악, 그 맛과 소리깔>(신대철 지음) 중 일부분입니다.

우리 음악에는 적지 않은 복음적 요소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위법과 공통관습적 화성학에 기초한 서양음악에 나타나는 화성이 없다. 즉 합창이나 합주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선율로 연주된다. 반면에 서양음악은 각 성부나 악기가 동시에 다른 음을 내는 수직적 관계의 화음, 즉 화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들은 도 음 하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도와 미 솔이 동시에 울리는 음 세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독주나 독창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반주악기인 피아노가 독주와 독창의 선율에 수직적 음 체계를 지탱해준다.

가끔은 이와 같은 서양음악에 익숙한 이들로부터 우리음악에서 화성 없음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비평을 듣는 경우가 있다. 우리음악은 화성이 없으니 화성이 있는 서양음악보다 단순하고 단순한 우리음악이 복잡한 서양음악보다 진화가 덜 된 음악이며 진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예술성도 서양음악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논리에 의한 비평이다.

[중략]

우리의 단선율 음악과 서양의 화성적 음악을 그림으로 설명해보자. 그러면 이해가 한결 쉬워지리라고 본다. 서양화에서 분홍색을 요구할 때 좋은 배색법은 빨간색에 흰색을 섞는다. 그래야 좋은 분홍색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방법은 서양음악의 화성적 방법과 개념에서 일치한다. 즉 3화음을 만들기 위해 도의 색에 미와 솔의 색을 배합함으로 분홍의 으뜸 3화음을 만들었다. 또 파에는 라와 도의 색을 섞어 버금딸림 3화음을, 솔에는 시와 레를 섞어 딸림 3화음을 만들었다. 즉 색에 색을 더하여 혹은 덧칠하여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듯 그들은 음악도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수직적 화성의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어나갔다.

이런 음악은 꽉 찬 느낌을 준다. 반면에 빈 공간적 여백의 여유와 장자다운 한가로움은 부족하다. 그리고 충일함은 엿보여도 담백한 여운을 만나기가 어렵다. 대위법에 의한 음악 또한 그렇다.

우리의 전통적 그림에서는 이런 배색법이 고려되지 않는다. 우리 그림에서는 붓에 검은 먹묵을 듬뿍 묻혀 그려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한번 붓이 지나간 부분에 다시 덧칠을 허용하지 않음이 전통적인 우리 회화의 한 방법이다. 한번 붓이 거친 자리가 못마땅해서 다시 덧칠을 함은 금기이다. 우리의 음악이 단선율임은 그림의 경우에 빗대어 설명될 수 있다.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하나의 수평적 색을 원했다.

한편 서양화는 캔버스의 구석구석을 색으로 꽉 채워 놓아야 한다. 그래야 완성된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서양화 거의 대부분에서 흰 공간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서양음악의 화성도 이와 똑같다. 그들에게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빈틈과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 음들을 수직적 방법으로 꽉 채워 놓는다. 그리고 이 채우는 방법도 점점 확대되어 3화음만으로 만족될 수 없어 7화음, 9화음, 군집화음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반면에 우리 그림은 많은 빈 공간의 여백을 남겨 둔다. 커다랗고 넓은 화선지에 한 일(一)자 하나만을 써넣어도 완성된 작품이다. 어떤 전통적 한국화가 화선지 구석구석까지를 색으로 채워 놓았던가. 우리의 미술세계에서 그러한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그림은 충분한 여백을 남겨 놓음으로써 묘한 여운과 여유를 던져 준다.

[중략]

우리 음악의 단선율은 우리 그림에서 나타나는 여운과 여유를 지닌 여백을 인정하는 세계를 지녔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부르는 합창도 사실은 하나의 선율이요, 가야금 거문고 젓대 피리도 모두 하나로 일관되어 흐른다. 바로 그 하나됨 속에 장자의 여유와 일치된 수평적 선적 화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음악은 서양음악과 같은 화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음악을 우리 음악답게 해주는 하나의 특징적 요소다. 단선율에 의한 이러한 음악은 화성적 음악에 비해 표현의 방법이 솔직 담백하여 우리에게 정적으로 다가온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반면에 치밀한 조직적 구성면에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단선율의 음악을 통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정적인 멋과 맛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간혹 단선율의 그레고리안 찬트에서 느껴지는 달콤한 부드러움과 몸에 감겨오는 듯한 나긋함을 맛보아 우리 음악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를 만들어보길 권한다.

2 Passage 1과 Passage 2를 잘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a) 한국 예술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아 쓰십시오. [5]

(b) 한국 예술에서 '여백'이 서양의 경우와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10]

답안의 내용에 따라 15점까지 주어지며, 답안의 언어구사력에 따라 추가로 10점이 주어집니다. (문체와 구성에 5점, 언어의 정확성에 5점)

© UCLES 2012

BLANK PAGE

© UCLES 2012

BLANK PAGE

Copyright Acknowledgements:

Text 1 © Oh, Jooseok; *Ohjooseok'ui Yetgrim Ilggiui Jŭlgŏum*; Solchulpansa; 2006.
Text 2 © Shin, Daechul; *Uri ŭmak, Gŭ Matgwa Soriggal*; Kyobomungo; 1993.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UCLES 2012